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지니언스(263860)

소프트웨어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9.12.12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니언스(263860)

국내 NAC, EDR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6/30 기준)

대표자	이동범
설립일자	2005년 01월 06일
상장일자	2017년 08월 0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정보보안 토탈 솔루션 (NAC, EDR, GPI)

시세정보(2021/10/29 기준)

현재가	8,39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792억원
발행주식수	9,444,600주
52주 최고가	9,750원
52주 최저가	5,120원
외국인지분율	11.63%
주요주주	
이동범 외 4인	41.90%
Miri Capital	9.09%
Management LLC	
프리미어파트너스	6.33%
외 1인	
자사주	9.40%

■ NAC 시장점유율 국내 1위, EDR 부문 국내 최대 고객 확보

지니언스(이하 동사)는 기업 내부 정보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정보보안 토탈 소프트웨어 회사로 2005년 1월에 설립되어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국내 NAC(Network Access Control,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시장점유율 72%를 기록하여 NAC 부문 1위를 달성하였고, 보안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EDR(Endpoint Detection Response, 단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분야에서도 2017년 국내 최초 독자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국내 최대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다.

■ 창사 이래 16년 연속 흑자 달성 및 국내 1,600여 곳의 판매처 보유

동사는 2005년 설립 이래 1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본부, KEB하나은행 등 약 1,600여 곳을 판매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8.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동사는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33개국, 34개의 현지 파트너를 확보한 상태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아프리카 케냐 로스쿨에 동사의 제품 'Genian NAC' 을 수출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 BYOD 시대 도래,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로 보안 시장은 성장세

사물인터넷(IoT)의 증가와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할 수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어 보안 시장과 함께 NAC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EDR 역시,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 증가와 기존 백신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힘입어 동사의 매출 역시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14.5	3.1	23.6	11.0	26.4	12.3	8.3	7.0	18.0	280	3,488	18.8	1.5
2019	249.3	16.2	22.9	9.2	31.1	12.5	9.4	7.7	26.2	329	3,792	15.6	1.4
2020	268.1	7.5	25.9	9.7	34.2	12.8	10.0	7.9	26.3	363	4,082	18.2	1.6

기업경쟁력

국내 NAC, EDR 부문 선두주자

-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NAC 부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달성
- EDR 부문 국내 최다 고객 보유(2020년 한 해에만 신규 고객 26곳 확보하여 72곳의 누적 고객 보유)

국내 1,600여 개 이상의 판매처와 해외 파트너

- 2020년 기준,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본부, KEB하나은행 등 약 1,600여 곳 이상을 판매처로 확보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미국 법인 설립 및 전 세계 33개국, 34개의 현지 파트너 확보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DPI 기술과 차세대 NAC 기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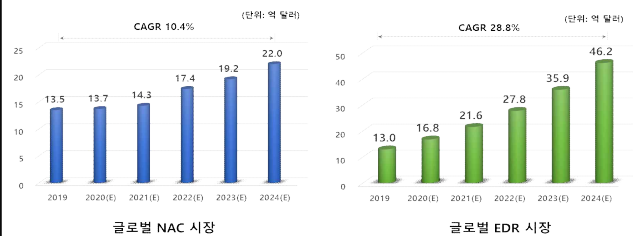
- 동사의 NAC은 DPI를 활용하여 단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 제로 트러스트 NAC은 클라우드 및 재택근무 등으로 분산된 IT 환경을 위한 차세대 보안 기술

제품군	제품 설명
NAC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여 기업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EDR	Endpoint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빠르게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위 탐지 및 대응 솔루션
GPI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솔루션

시장경쟁력

정보보안 이슈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전망

- 글로벌 NAC 시장은 2024년 22억 달러(한화 약 2조 5,9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EDR 시장은 2024년 46억 1,900만 달러(한화 약 5조 4,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차세대 NAC 솔루션과 EDR 사업 순항으로 추가적인 판매 증가 예상
- BYOD 시대 도래와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로 정보보호 솔루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 전망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산업(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활발한 환경경영 활동을 시행하지는 못하나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내부적으로 절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 카페테리아를 마련하고, 무료 구내식당 및 사내문고를 운영하고, 전사 유연근무제를 시행함.
- 동사는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계발비 연간 150만 원, 헬스케어 지원금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및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골프, 리조트 회원권 지원, 패밀리 데이 제도 등을 운영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투명한 내부 회계 관리를 위해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 조직을 구성함.
- 동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0.32%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I. 기업현황

NAC, EDR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

동사는 2005년 설립 이래 NAC, EDR 기술들을 제품화하여 1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종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2020년, 국내 NAC 부문 시장점유율 1위, EDR 부문 국내 최다 고객 확보를 달성하여 현재 국내 NAC, EDR 산업에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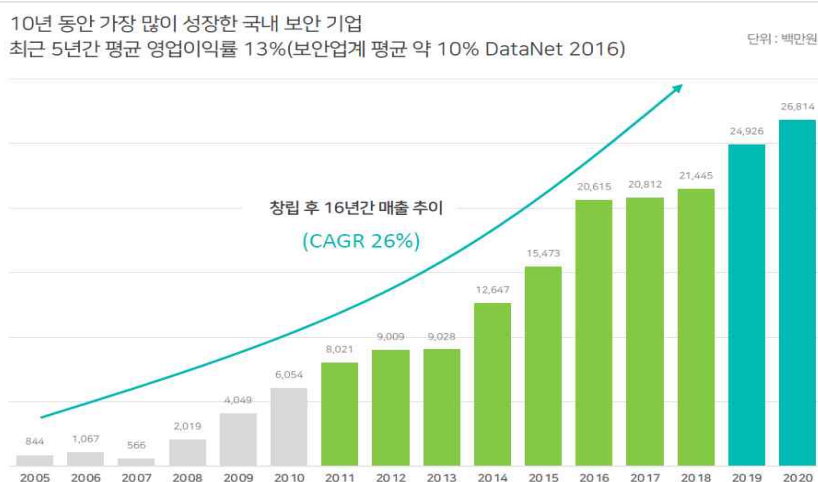
■ 기업 개요

동사는 기업 내부 정보보호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종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로 2005년 1월에 설립되어 2017년 8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NAC(Network Access Control,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EDR(Endpoint Detection Response, 단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GPI(Genian Policy Inspector, 사용자 보안 솔루션)를 주력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반기보고서 (2021.06)에 의하면, 2020년 총 268.1억 원, 2021년 상반기 112.6억 원의 매출을 실현, 2005년 설립 이래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동사는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국내 NAC 시장점유율 72%를 차지하여 NAC 부문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EDR 분야에서도 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동사는 ‘가상의 인라인 네트워크 보안방법’ 등 총 19개의 정보보안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전체 직원의 70%를 차지한다.

동사는 2016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미국 진출을 필두로 전 세계 33개국, 34개의 현지 파트너를 확보한 상태이며, 최근 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1] 동사 창립 후 16년간 매출 추이



*출처: 동사 제공자료

■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 전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총 5곳이다, 최대주주는 이동범 대표이사로 총 30.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동사가 9.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투자운용사인 Miri Capital Management LLC는 최근까지 9.09%의 지분을 차지하였으며, 동사의 임원인 김계연 부사장은 6.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6.33%이다.

[표 1] 동사 주요 주주(5% 이상 주주)

주주명	보통주(주)	지분율(%)	비고
이동범	2,863,699	30.32	대표이사
지니언스(주)	887,676	9.40	자사주
Miri Capital Management LLC	858,498	9.09	미국 투자운용사
김계연	640,000	6.78	임원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597,652	6.33	투자조합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는 종속기업으로 미국법인인 GENIANS USA, INC를 2016년 설립하였다. 동사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GENIANS USA, INC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자산 699백만 원과 부채 203백만 원, 매출액 172백만 원을 기록하였다.

■ 사업 분야

동사는 정보보안 제품 판매와 기술지원 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정보보안 제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다. 제품 판매는 2019년 84.8%를 차지한데 이어 2020년에는 82.8%를 차지하였다.

[그림 2] 동사 주력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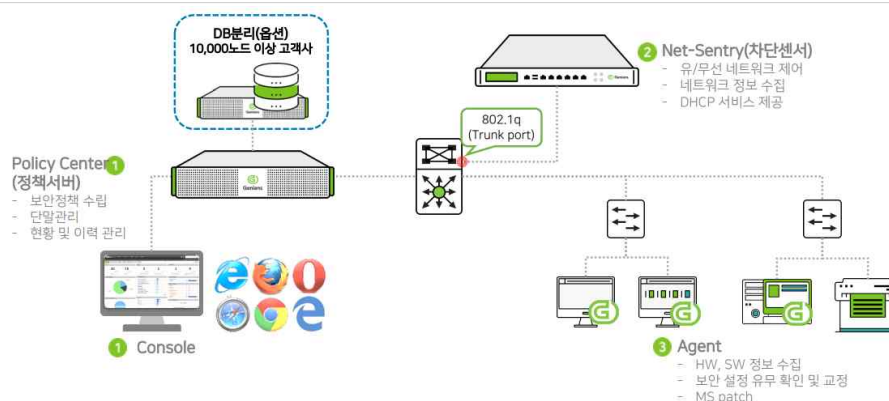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정보보안 제품은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NAC과 랜섬웨어와 같은 지능화된 악성코드들을 방지하기 위한 EDR, PC 사용자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GPI가 있다. 먼저, 동사의 NAC은 내부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여 내부 자산과 사용자를 보호하고 기업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이다. 이는 동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2006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시스코, 지만텍,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제품 기획력, 기술력, 시장 창출 능력을 인정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NAC 산업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 관리 필요성을 시장에 주지시킴과 2010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사업이 급성장하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이 출시되어 우정사업본부, 공군, 해군 등에 대규모 공급되었다.

[그림 3] 동사의 NAC 구성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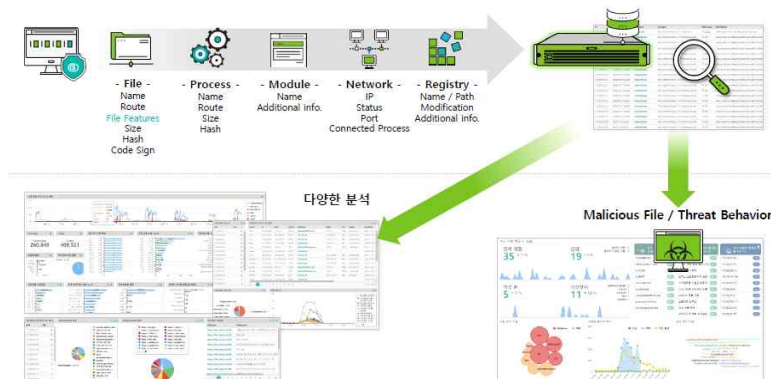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Insights E는 EDR 솔루션으로 단말 즉, Endpoint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빠르게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말 이상 행위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이다. 단말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행 파일과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악성코드와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능이 있고, 최신 침해사고 지표, 머신러닝, 행위기반 등 다단계 위협탐지 엔진을 통하여 악성코드를 사전 유입단계부터 탐지하고 대응한다.

동사는 Insights E를 2017년 국내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 EDR 사업인 NH농협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신규 고객사 26곳을 확보하여 총 72곳의 누적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동사의 EDR 노드 수는 약 10만 대로 2019년 대비 약 3배 가량 성장한 수치이다.

[그림 4] 동사의 Insights E 구성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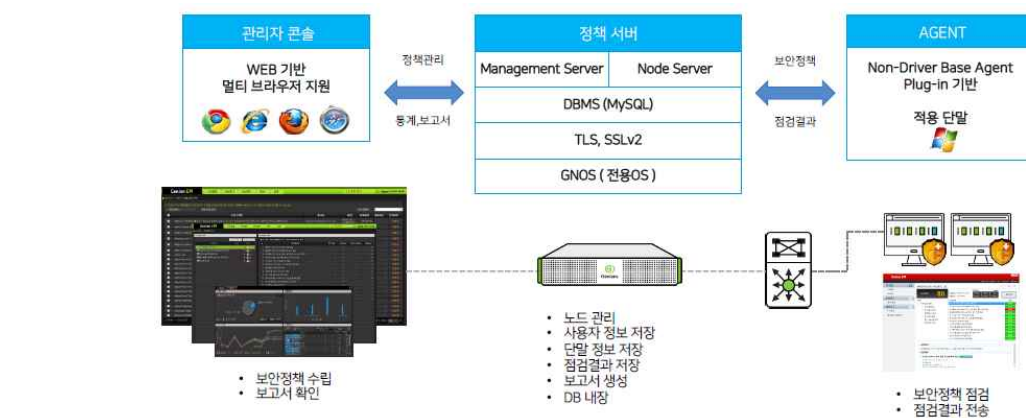
Agent는 수집 로그 전송, 행위 탐지, 대응을 수행하며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이벤트 분석은 서버에서 수행



*출처: 동사 제공자료

동사의 GPI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행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솔루션이다. GPI를 통한 점검 결과는 개인, 부서 단위로 점수화하여 직원과 관리자 모두에게 보안수준을 인지시킬 수 있으며 비교를 통해 우열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점검항목과 조치를 통하여 보안수준을 개선하는 효과와 보안수준의 인식 제고를 높여 성숙한 정보보안 문화를 조성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그림 5] 동사의 GPI 구성 및 기능



*출처: 동사 제공자료

■ 매출실적 및 판매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에 의하면, 동사는 2020년 총 268.1억 원, 2021년 상반기 11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 중 수출에 의한 매출이 각각 전체 매출의 2.7%와 1.9%에 달하는 7.2억, 2.2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제품 매출에서 발생되었다.

[표 2] 동사 매출실적(2020년, 2021년 상반기)

(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2021년 상반기	2020년
네트워크 보안	제품 매출	NAC Insights E GPI	수출	176	556
			내수	8,799	21,640
			합계	8,974	22,196
	용역 매출	유지관리 기술지원	수출	47	160
			내수	2,233	4,337
			합계	2,280	4,497
기타	기타 매출	임대	수출	-	-
			내수	8	121
			합계	8	121
합 계			수출	222	716
			내수	11,040	26,098
			소계	11,262	26,814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국내 판매처는 2020년 기준 약 1,600여 곳으로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본부, KEB하나은행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청, 법무부, 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도 포함한다. 또한, 동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 2분기에는 이스라엘에 NAC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동사는 현재 북미와 남미지역에 클라우드 기반 NAC 이용 고객들을 발굴 중이며,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SW 라이선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림 6] 동사의 주요 판매처(국내)

 ncia 문화체육관광부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KEX 한국도로공사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HYUNDAI KIA MOTORS	 LG 화학	 SK 화학·에너지
 K water	 KORAIL 한국철도시설공단	 KOROAD 도로교통공단	 Standard Chartered SC 서울외국인은행	 MG새마을금고	 신협	 SK E&C	 롯데홈쇼핑	 HYUNDAI
 부산항만공사 BHA	 경찰청	 KBS	 BNK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안지축은행	 KCC	 동아제약	 ILDONG 일동제약
 법무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BS저축은행	 Heungkuk LIFE INSURANCE	 H 현대해상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경찰청	 한국은행	 NOC 한국세무공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신한생명	 HYUNDAI amco	 MBC	 한국소비자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수출입은행	 ING	 MERITZ	 삼성생명	 중앙일보	 ENM	 KB생명
 방위사업청	 조달청	 국회사무처	 The K 손해보험	 금융결제원	 동양시멘트	 S-OIL 에너지·오일	 오리온	 국립중앙도서관
 KDX 한국가스공사	 KOGAS	 MIRAE ASSET	 우리카드	 하나카드	 Domino's Pizza	 OLYMPUS	 한국에너지공단	
 관세청	 국립고령박물관	 HendrickCars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증권	 THE ELAND	 BGF 리테일	 하이마트	 국립중앙과학관
 환경부	 KOM-SCO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아주캐피탈	 삼성생명	 서울아산병원 Asan Medical Center	 고려대학교의료원	 NCC 연천NCC

*출처: 동사 제공자료

■ NAC의 핵심기술인 DPI와 차세대 보안기술 제로 트러스트 NAC

동사의 DPI(Device Platform Intelligence)는 NAC의 핵심인 단말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기술이다. 가시성이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무선 단말을 탐지하고 정확히 분류하는 기술로 DPI는 동사가 기존에 사용했던 GPDB(Genian Platform DataBase)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DPI는 가시성 확보를 위해 더 다양한 단말을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보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확장정보와 취약성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말 또는 사이버 위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이러한 DPI의 가시성 확대는 단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사의 DPI는 정보수집 단계와 정보분석 단계, 패턴생성 단계, 매칭 단계를 거친다. 정보수집 단계는 단말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보를 전송하고 회신된 정보를 수집하는 능동적 수집(Active Scan)방식과 오직 전달된 정보만을 수집하는 수동적 수집(Passive Scan)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분석 단계는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패턴생성 단계는 분석된 정보들을 특정 단말과 정의할 수 있도록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칭 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매칭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4단계를 통해 단말은 완전히 식별될 수 있고 더욱 확장된 가시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림 7] DPI를 이용한 디바이스 확인

D-Link DIR-400 Wireless Router

Platform Information: http://www.dlink.com/products/5760_6161/

Search Engine: [Search on Google](#)

End of Sales: [Yes, now info](#)

End of Support: [Yes, now info](#)

Wired Connection: Yes

Wireless Connection: Yes

Fingerprinting Source: [DPI](#) [No device](#)

Added at: Apr 28, 2019

Manufacturer Name: D-Link Systems, Inc.

Homepage: <http://www.dlink.com>

Headquarters: Taiwan

Business Status: Ongoing

Platform's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CVE)

CVE-ID	Severity v3.0	Severity v2.0	Description
CVE-2020-2047 8924209	CRITICAL	HIGH	Buffer overflow on the D-Link DIR-400 wireless router allows remote attackers to execute arbitrary code via unspecified vectors, as demonstrated by a certain module in VulnDico Pack Professional 8.10 through 8.11. NOTE: as of 2020/01/17, this disclosure has no actionable in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VulnDico Pack author is a reliable researcher, the issue is being assigned a CVE identifier for tracking purposes.

Manufacturer's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C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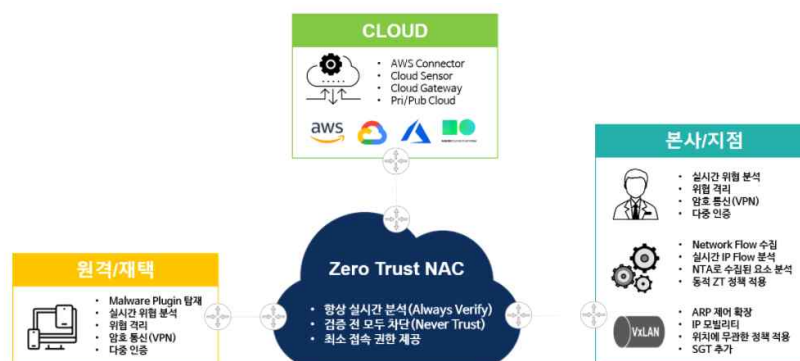
CVE-ID	Severity v3.0	Severity v2.0	Description
CVE-2019-15928 84110279	CRITICAL	HIGH	On D-Link GPR-1520 (A1) before firmware version 1.020201, DAP-1012 (A1) before firmware version 1.020201, DWR-111 (A1) before firmware version 1.020201, DWR-116 (A1) before firmware version 1.020201, DWR-112 (B1) before firmware version 2.020201, DWR-711 (A1) through firmware version 1.11, DWR-712 (B1) before firmware version 2.020201, DWR-801 (A1) before firmware version 1.020201, and DWR-801 (B1) before firmware version 2.020201, there exists an (DOS) (SHELL) file in the web directory. By sending a GET request with specially crafted headers to the /EXECUTE/SHLL URL, an attacker could execute arbitrary shell commands in this root context on the affected device. Other devices might be affected as well.
CVE-2018-8125 89120219	CRITICAL	MEDIUM	An issue was discovered on D-Link DIR-825 Rev B 2.10 devices. There is an information disclosure vulnerability via requests for the /info, /info and /document. This will reveal the PPK code, MAC address, routing table, firmware version, update time, GOS information, LAN information, and WLAN information of the device.

*출처: 동사 제공자료

동사는 최근 IoT,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보안기술로 제로 트러스트 NAC을 선보였다. 제로 트러스트 NAC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 단말, 데이터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과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NAC 기술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안 원칙을 가진 제로 트러스트 NAC은 클라우드 및 재택근무 등으로 분산된 IT 환경을 위한 차세대 보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보안 전시회 'RSAC2021'에서 소개된 바 있다.

제로 트러스트 NAC의 핵심은 노드를 계속해서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화된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드는 일반적으로 단말을 의미하나 제로 트러스트 NAC에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대상인 PC나 노트북 등 단말뿐 아니라, 사용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 응용프로그램, 트래픽 등이 모두 노드에 해당되며, 클라우드, IoT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수많은 장치를 보호해야 하므로 구성이 복잡하고 구현이 어렵다. 그러나 동사의 네트워크 엣지 보안, DPI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로 모든 노드의 검증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사의 제로 트러스트 NAC은 NAC과 VPN이 통합된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클라우드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새로운 구성요소인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여 인증 서비스와 실시간 QoS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림 8] 제로 트러스트 NAC이 제공하는 영역별 기능



*출처: 동사 제공자료

■ BYOD 시대와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로 보안시장의 견고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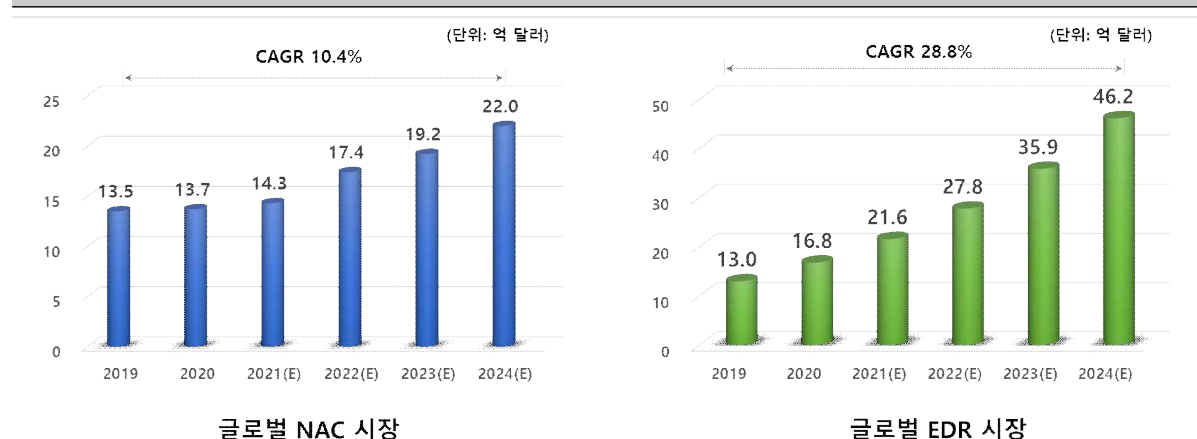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인 Frost & Sullivan에 의하면, NAC 서비스,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2019년 전 세계 NAC 시장은 2018년보다 16.1% 증가한 13.5억 달러(한화 약 1조 5,930억 원)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10.4%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22.0억 달러(한화 약 2조 5,9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2021년까지는 NAC 시장 성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2년부터 성장이 재개돼 2024년까지 고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증가와 개인 소유의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할 수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빌리티 증가, 재택근무 증가 등이 NAC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NAC 시장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시스코, 포어스카우트, 아루바 등의 시장 선도가 예상되나, 국내 시장은 동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The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 글로벌 EDR 시장은 2019년 13.0억 달러(한화 약 1조 5,340억 원)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28.8%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46.2억 달러(한화 약 5조 4,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DR 시장의 성장동력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의 증가와 기존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AI와 결합된 신종·변종 악성코드 증가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대응이 불가할 수 있어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EDR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M&A를 통해 EDR 솔루션을 신규로 획득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추세이다. 국내 현황은 글로벌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EDR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9] 글로벌 NAC 및 EDR 시장 전망



*출처: Frost & Sullivan(2020), The Insight Partners(2019),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넷맨] 넷맨은 2001년 9월 설립된 네트워크 및 Endpoint 보안 전문기업이다.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39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국책 R&D 수행 경험과 축적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NAC, IP주소 관리, Endpoint 취약점 점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공공기관, 금융기업, 대기업 등이며, 2019년과 2020년 매출은 각각 61.3억 원, 56.8억 원을 기록하였다. 넷맨의 주력제품인 스마트 NAC은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접근제어뿐 아니라 사용자 및 Endpoint 보안을 더 강화하는 PMS, 강력한 IP/MAC 통제기능을 강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PC보안 관리 솔루션인 스마트 SIG, IP 관리 솔루션 IP Plus 등을 주요제품으로 한다.

[스콧정보통신] 스콧정보통신은 1999년 6월 설립된 L2 네트워크 보안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전 직원의 6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기술 집약형 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NAC, PC보안 솔루션, Endpoint 통합 보안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판매한다. 주요 고객사는 대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이며, 2019년과 2020년 매출은 각각 79.5억 원, 76.6억 원을 기록하였다. 스콧정보통신의 주력제품인 IPScan NAC은 2010년 선보인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CC인증(EAL 2등급), GS인증(1등급) 등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 ‘우선구매대상’ 지정제품으로 등록되어 판매 중이다.

[엔피코어] 엔피코어는 2008년 11월 설립된 Endpoint 보안 전문기업이다. 엔피코어는 핵심기술과 관련한 12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변종 악성코드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고객사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 금융기관 등 국내외 100여 곳이며, 베트남 지사 설립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총판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시장도 개척 중이다. 2018년과 2019년 매출은 각각 34.8억 원, 42.8억 원을 기록하였고, 엔피코어의 Endpoint 보안제품 좀비제로는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구간에 구축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3] 경쟁사 매출동향

(단위: 억 원)

년도	구분	지니언스(동사)	넷맨	스콧정보통신	엔피코어
2020년	매출액	268.1	56.8	76.6	-
	순이익	34.2	11.7	4.4	-
2019년	매출액	249.3	61.3	79.5	42.8
	순이익	31.1	7.6	-11.6	6.8
2018년	매출액	214.5	58.5	77.7	34.8
	순이익	26.4	1.3	5.6	6.8

* 출처: 동사 및 경쟁사 사업보고서(2020.12)

■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NAC 시장 1위를 유지 중이나,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필요

[그림 10] SWOT 분석

Strength

- 국내 NAC 시장 점유율 72%의 검증된 기술력
- EDR 부문 국내 최대 고객 확보
- 16년 연속 흑자 달성의 기업 경쟁력

Weakness

- 국내 판매실적에 반해 글로벌 판매 실적은 저조하여 영업이익률 저하

- 코로나19에 따른 BYOD 시대 도래로 NAC 시장의 성장세 전망
- 지능화된 신종·변종 악성코드 증가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EDR 관심도 증가

Opportunity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Threat

- 국내 NAC 시장의 성숙기 도달 및 EDR 시장 선점 경쟁 치열
- 경쟁사 증가와 제품의 저가 공세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환경(E) 부문에서 오염방지, 자원이용, 작업환경 등의 이슈 가능성은 제조업에 비하여 낮다. 다만, 서버 가동,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기에너지가 소비되는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사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 활동으로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 카페테리아를 마련하고,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또한 사내 문고를 운영하고, 전사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계발비 연간 150만 원, 헬스케어 지원금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본인 이외에도 가족 1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을 지원해준다. 아울러, 경조 휴가 및 경조금 지원제도, 골프, 리조트 회원권 지원제도,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및 자격수당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기본역량 강화와 동시에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의 2021년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 남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5.7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3.2년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동업종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은 67%로 산업평균인 72%보다 낮게 집계되었으며,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 역시 56%로 산업평균인 67% 이하이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24.6%로 동사가 속한 정보통신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33.24%(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비율, 고용노동부)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동사 임직원은 2019년 말 총 132명에서, 2020년 말 총 145명으로 13명 증가하였으며, 2021년 반기 기준, 총 150명으로 5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 정규직 비율은 2021년 상반기 약 92%를 나타내어 고용의 양과 질 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동사 직원의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2021.6월말 기준)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 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10	3	113	5.7	7.7	43	59
여	28	9	37	3.2	5.2	29	43
합계	138	12	150	5.1	6.9	41	5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 직원의 연도별 구성원 현황

성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남	101	1	107	5	110	3
여	22	8	23	10	28	9
합계	123	9	130	15	138	12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2020.12),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여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투명한 내부 회계 관리를 위하여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시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으며, 동사의 지분구조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0.32%로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재무분석

기업 내 정보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 증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으로 기업 내 정보보호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동사의 보안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도를 상회하는 매출 외형을 기록하였고, 신제품 매출 본격화에 따라 2021년 실적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품 판매 및 해외 유통망 확보

동사는 2006년 국내 보안기업 중 최초로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을 출시한 후,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 중이며, 주요제품으로는 NAC, Insights E, GPI가 있다. 2020년 기준 동사의 매출구성비는 제품(Genian NAC, Genian Insights E, Genian GPI)이 82.8%, 용역(유지관리 기술지원)이 16.8%이고, 기타(건물임대)가 0.4%를 차지하였다. LG화학, 제일모직과 같은 민간업체와 조달청을 통한 관급 납품 등 국내 거래처에 동사의 제품을 판매 중인 가운데, 2021년 7월 기준 동사는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내수 97.3%, 수출 2.7%의 판매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 6]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액	214.5	249.3	268.1	107.9	112.6
매출액증가율(%)	3.1	16.2	7.5	6.4	4.4
영업이익	23.6	22.9	25.9	-8.6	7.8
영업이익률(%)	11.0	9.2	9.7	-8.0	6.9
순이익	26.4	31.1	34.2	-2.2	16.9
순이익률(%)	12.3	12.5	12.8	-2.0	15.0
부채총계	57.6	88.6	91.9	80.2	69.2
자본총계	320.2	338.6	349.3	321.3	366.4
총자산	377.8	427.2	441.2	401.5	435.6
유동비율(%)	801.9	433.3	534.4	708.3	474.6
부채비율(%)	18.0	26.2	26.3	25.0	18.9
자기자본비율(%)	84.8	79.3	79.2	80.0	84.1
영업현금흐름	31.2	18.3	39.2	39.6	29.8
투자현금흐름	-9.5	-8.4	-22.7	-39.3	-25.7
재무현금흐름	-22.6	-13.4	-21.1	-13.9	-1.8
기말 현금	39.5	36.1	31.2	22.4	33.7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반기보고서(2020.06, 2021.06)

■ 주요 거래처의 보안 이슈 증대로 비교적 양호한 수익구조 지속

동사는 AI와 결합된 각종 악성코드, 해킹 증가와 이에 따른 단말기, 서버 통합제어 솔루션의 전방위적 수요 증가로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 금융, 제조 등 다수의 대형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확보하였다. 2017년 출시한 'Genian Insights E' 등 신제품의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동사 매출은 2018년 214.5억 원, 2019년 249.3억 원, 2020년 268.1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 세미나, 재택근무 등의 폭발적 증가가 동사 보안 솔루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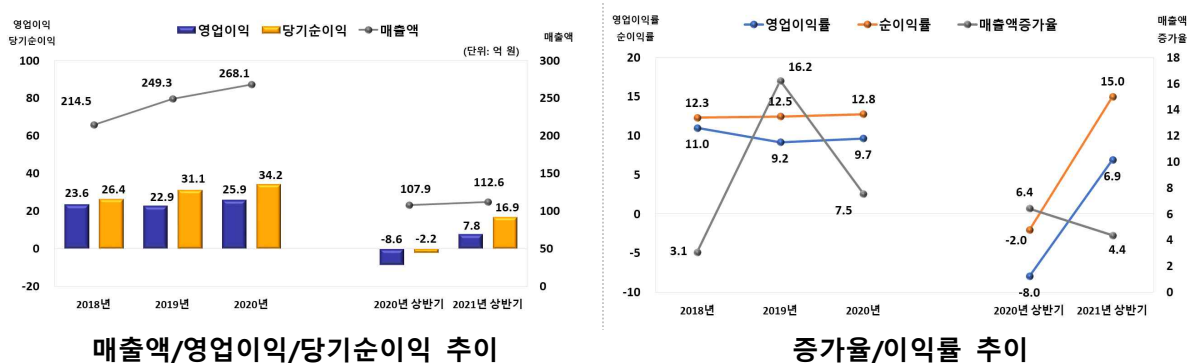
동사는 인력의 운용 및 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을 시험하는 SI/SD 업종 특성상,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개년 동안 가장 높이 나타났다(2019년 33%, 2020년 35%를 기록). 한편, 2020년에는 매출 증대 및 매출원가율이 전년 수준인 41%를 유지한 가운데, 인건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판매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한 49% 수준을 나타내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5.9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기 영업이익 증가, 이자수익,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34.2억 원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는 10%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신제품 매출 본격화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은 16.9억 원으로 집계

2021년 상반기에는 EDR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NAC솔루션 등 신제품을 DB손해보험을 비롯한 금융권,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는 기존 중견, 대기업 고객사의 그룹 내 NAC, EDR 솔루션 구매 확대 등이 동사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112.6억 원, 상반기 순이익은 16.9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반기 영업수지가 흑자로 기록되었다.

[그림 11] 연간 및 2021년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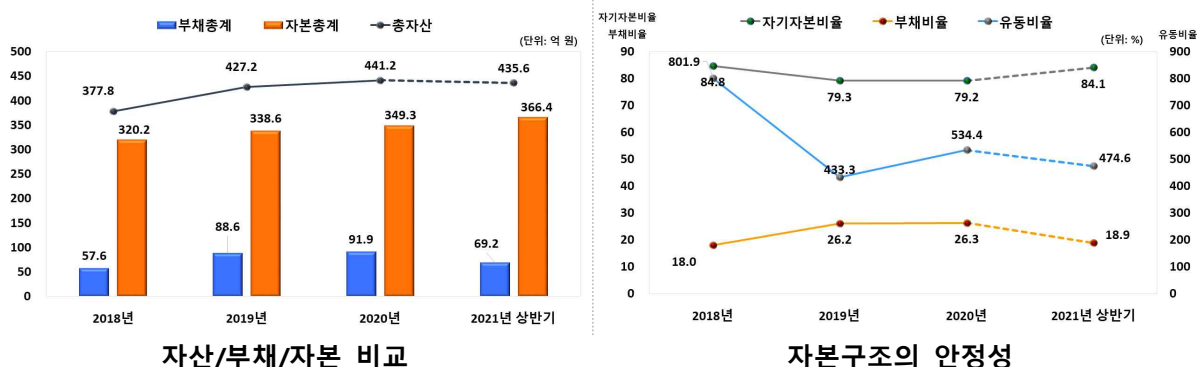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2] 연간 및 2021년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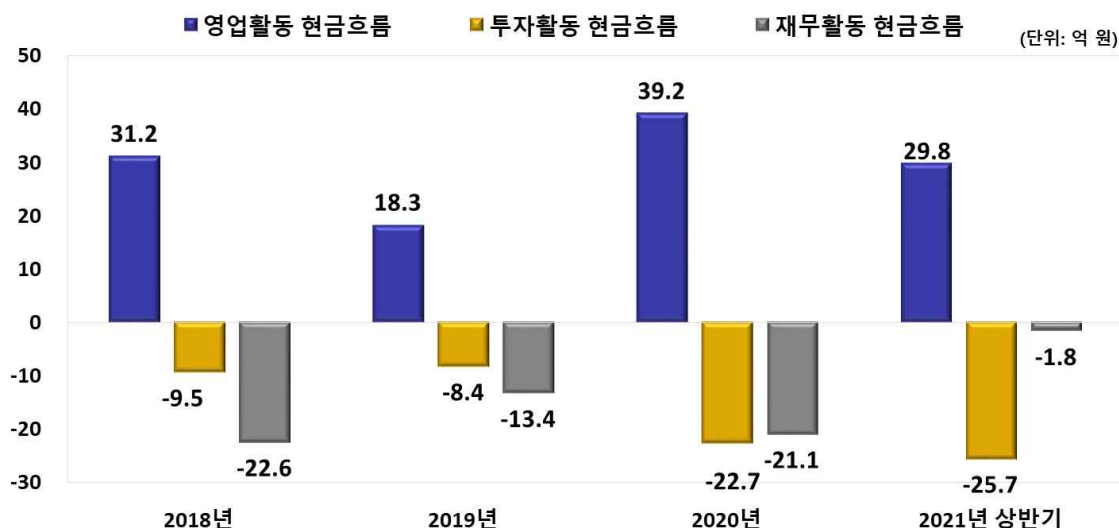
■ 2020년 투자, 재무 소요비용은 보유 현금으로 조달, 2021년 상반기 역시 무난한 현금흐름 유지 예상

동사는 2020년 당기순이익 시현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영업활동상 양(+)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 리스부채 지급 등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이지만 기초 내부유보된 자금으로 충당하는 현금흐름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0년 기초 36억 원에서 기말 3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현금화가 용이한 단기금융상품이 173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은 무난한 수준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금융리스부채 지급 외에 비경상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자기주식 취득)와 같은 자금 소요가 없어서 영업활동상 양(+)의 현금흐름을 기록하는 등 무난한 현금창출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2021년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이 217억 원으로 전년 말에 이어 무난한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였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반기보고서(2021.06)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EDR 사업순항과 클라우드 NAC 서비스의 관심 증대로 중장기적 성장 기대

EDR 부문 국내 최대 고객을 확보한 동사 실적과 클라우드 NAC 서비스의 관심 증대, 동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가속화로 중장기적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

■ 차세대 NAC 솔루션과 EDR 사업 순항으로 추가적인 실적 증가 예상

동사의 NAC은 이미 IoT 서비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동사 솔루션과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할 수 있으며 IT 환경 전환 과정에서도 손쉽게 보안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클라우드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원격근무와 단말 접속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 NAC을 향후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모델) 아키텍처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정보보안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NAC으로 구축한 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인 EDR까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동사의 EDR 사업은 2017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2020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현재 국내 최대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다. EDR 사업매출 비중은 동사 전체 매출의 10%에 달했으며,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2021년도는 매출의 약 2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동사의 EDR 주요 수요는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시장과 금융권 등이었다. 제조 기반의 대기업 등은 대부분 진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동사는 전통적인 강세인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병원,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섹터에서 사업기회를 점진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클라우드 NAC 서비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가속화

동사의 클라우드 NAC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모델이다. 월 과금 형태로 노드 수에 따라 지불하는 형태라 보안에 관심이 많으나 초기 도입 비용 및 관리 이슈로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기관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클라우드 NAC은 NAC 서비스 모델(NAC as SaaS)로 분류되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에 의하면, NAC 서비스 모델은 2024년까지 26.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클라우드 NAC은 정책 서버의 경우, AWS(Amazon Web Service)에 구성되어 내부 환경에 별도 설치가 없는 신속한 설치와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클라우드형 NAC은 기존 제품인 Genian NAC과 함께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드형 NAC을 포함한 계약이 해외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 신규고객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아프리카 케냐 로스쿨에 동사 제품을 공급하였다. 동사는 각 국가의 특성 및 현지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데, 북·남미 지역은 클라우드 기반 NAC을 구독형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중동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2020년 기준 동사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2% 수준으로 아직 높은 편은 아니나, 클라우드 NAC 서비스의 관심 증대와 지속적인 해외 고객 발굴을 통해 점진적인 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리서치알음	Positive	11,700	2021.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연결기준 22년 동사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350억 원(+16.8%, YoY), 영업이익 56억 원(+24.4%, YoY)으로 추정 ■ 적정주가는 22년 예상 EPS 587원에 Target PER 20배를 적용해 산정. PER Multiple은 사이버 보안 업계 평균 PER 24배(안랩, 한국정보인증, 이글루시큐리티, 케이사인 등)를 감안하여 적용. 매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 ED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PER Multiple 20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교보증권	Not Rated	—	2021.0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실적은 매출액 268억 원(+7.6% YoY), 영업이익 26억 원(+13.0%, YoY)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EDR 매출 비중은 전사 매출의 10%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연간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해 향후 실적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 ■ 대형 금융기관 중심 수주 지속. 20년 EDR 연결 노드 수는 누적 30만 개로 2019년 대비 2020년 노드 수가 두 배 가까이 올라오며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기존 수주 건에 대한 추가 구축과 신규 고객사 수주 영향으로 20년 이상의 매출이 기대 ■ 구독 비즈니스 기반 이익률 개선세 지속될 전망. 올해 지니언스 실적은 매출액 308 억원(+15.0% YoY), 영업이익은 36억 원(+38.7% YoY, OPM 11.7%)로 예상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KB증권	Not Rated	—	2021.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인 EDR 중심으로 실적 성장 기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정보보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우호적 사업환경 전개. 신성장 동력 EDR을 중심으로 지속 실적 성장 기대 ■ 캐시카우인 NAC의 꾸준한 성장. PC, 모바일 등 기존 단말기 외 클라우드형 제품 출시. 기존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매출 구조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실적 성장 기대 ■ EDR 시장 내 경쟁 격화 가능성 상존. EDR은 19년도 개화하여 초기 국면의 시장. 안랩, 이스트소프트 등 EDR을 출시한 주요 경쟁사들 사이에서 지속적 점유율 확보 중요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0월 27일)